

식약처, APEC 포럼서 디지털 식품안전 혁신 성과 공유

- 스마트 HACCP, Safe-i24, 푸드QR 등 디지털 기반 식품안전 혁신 사례 공유
- APEC 식품안전협력포럼(FSCF) 부의장국으로 글로벌 협력 주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5월 12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2026 식품안전협력포럼(FSCF*)’에 참석해 우리나라의 디지털 기반 식품안전 혁신 정책과 국제협력 성과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 **F**ood **S**afety **C**ooperation **F**orum: 2007년 설립된 식품안전 규제 조화와 안전한 식품 교역 촉진을 위한 APEC 산하 협의체

이번 포럼에는 APEC 21개 회원국과 국제기구 등이 참석해 식품안전 정책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포럼 의장을, 맡은데 이어 올해는 베트남과 함께 부의장 자격으로 회의에 참여했다.

5월 12일 열린 본회의에서는 포럼 활동성과, 국제기구와의 협력 현황, 신규 프로젝트, 회원국별 식품안전 정책 등이 논의되었다.

식약처는 지난해 포럼에서 중점적으로 다룬 첨단 식품안전관리 혁신 사례 워크숍 결과를 공유하며 ▲식중독 조기경보 시스템 ▲스마트 HACCP 시스템 ▲식품 영양성분 데이터베이스 등 주요 디지털 기반 정책을 소개했다. 또한 식품 위해정보 수집·분석 체계와 식품 유래 항생제 내성 관리 현황 등 회원국 간 공동 대응한 사례도 함께 공유했다.

5월 13일 열린 식품안전 규제 워크숍에서는 스마트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기술 혁신과 안전한 식품의 무역 촉진을 위한 국경 감시 협력 등을 주제로 한 다양한 발표가 있었다.

식약처는 ▲수입안전 전자심사(SAFE-124) ▲QR코드로 소비자에게 올바른 식품 정보를 편리하게 제공하는 ‘푸드QR’ ▲사물인터넷 기술을 이용한 ‘스마트해썹’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식품안전관리 정책을 소개했다.

아울러 ‘안전한 수입식품과 수출기업 등록 제도’를 주제로 한 패널토론에 참여해 회원국들과 정책 추진 경험과 협력 방향을 논의하였다. 특히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중국의 ‘해외 식품기업 정부 일괄 등록 제도’와 관련해 우리나라의 대응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운영 방향 등을 논의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포럼은 디지털 기반 식품안전 혁신 성과를 국제 사회와 공유하고, 2026 APEC의 가치인 ‘개방’, ‘혁신’, ‘협력’을 식품안전 분야에서 확대하는 의미있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해외 규제당국과 지속적 국제협력 및 규제조화를 통해 우리 식품안전관리 체계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주관)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안전정책과	책임자	과 장	최종동 (043-719-2010)
		담당자	사무관	박재우 (043-719-2023)
담당 부서 (협조)	글로벌수출전략담당관	책임자	과 장	김민정 (043-719-1351)
		담당자	사무관	김현진 (043-719-1354)







THE 13th APEC FSCF CONFERENCE



THE 13th APEC FSCF CONFERENCE